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48-1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다 컸는데 안 나가요!
- 성인 자녀의 독립 및 썬더족에 대한 인식

2025. 9. 17.

담당자 송한나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0993

e-mail | hnsong@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다 컸는데 안 나가요!

- 성인 자녀의 독립 및 켤거루족에 대한 인식

주요 결과

- 대한민국 민법상 만 19세가 되면 법적으로 성인이 되어, 독립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성인 자녀의 독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부모에게 독립하지 못하고 의존하는 '켤거루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7월 25~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 한국 사회에서 성인됨을 판단하는 주 요건으로 경제적 독립이나 자기 결정권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대다수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95%),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이 신념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94%),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92%)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 자녀 독립 시기는 '취업했을 때'(36%), '경제적으로 준비가 됐을 때'(20%) 순으로 적정하다고 본다. 독립의 기준은 '경제적 독립'(65%) > '주거지 독립'(21%) > '정서적 독립'(14%) 순이다. 응답자들은 독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월평균 경제적 수입을 318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3,800만 원 수준이다.
- 흔히 '켤거루족'을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부모에게 의존하는 성인 자녀를 일컫는 말로 사용한다. 이러한 켤거루족에 대한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는 들어본 적이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켤거루족에 대한 대상과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전체 응답자의 80%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한다.
- 부모와 동거 중이거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스스로 켤거루족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고, 2명 중 1명(48%)은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객관적 지표상 자녀가 켤거루족인 부모에게 본인의 자녀가 켤거루족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더니, 83%는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당연하다(77%)고 본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1+2순위 합산)는 '독립에 필요한 목돈이 부족해서',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서'(각각 35%)이다. 이 외에도 '취업이 어렵거나 고용이 불안정해서'(32%), '독립 후 생활비가 부담되어서'(27%) 등의 의견도 있다. 이러한 취업, 주거 등 사회경제 요인을 감안하여,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80%)은 한국 사회에서의 켤거루족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1 한국 사회에서 성인의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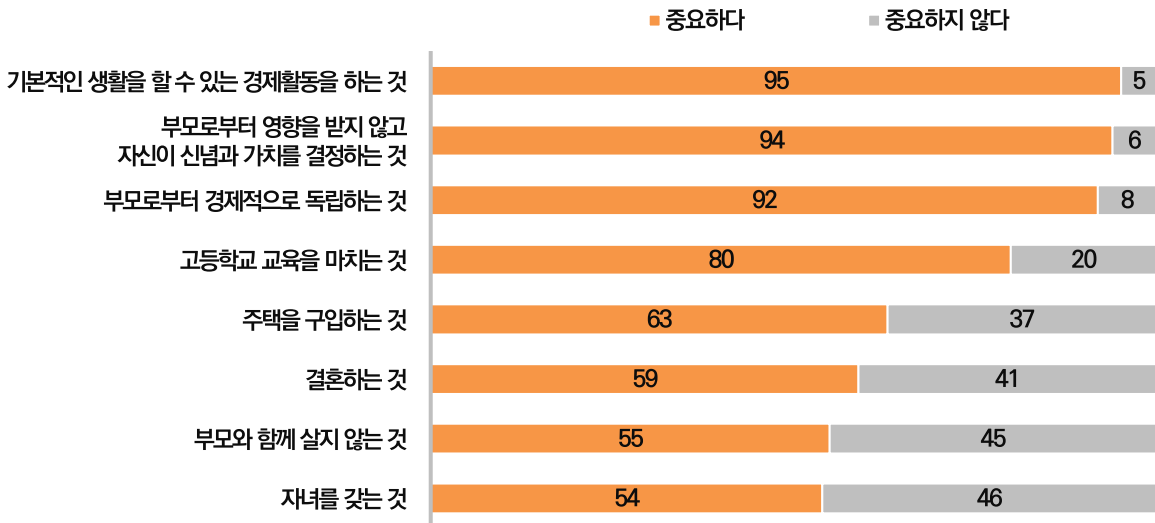
성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인의 조건을 질문한 결과,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95%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이 신념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94%),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92%) 순이다. 성인됨을 판단할 수 있는 주 요건이 직업을 얻고,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는 등의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자기 행동의 책임을 질 줄 알며 부모의 의지가 아닌 자기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성인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보고 있다. 반면 생애 주기에 따른 단계로 볼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 결혼과 출산을 통해 새로운 가족 형성, 주택을 소유하는 일 등은 경제적 독립이나 자기 결정권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인의 조건

(단위: %)

'경제활동을 하는 것'(95%) > '스스로 신념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94%) >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92%) 순



질문: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전혀 중요하지 않다+중요하지 않다) 응답 제시.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7. 25. ~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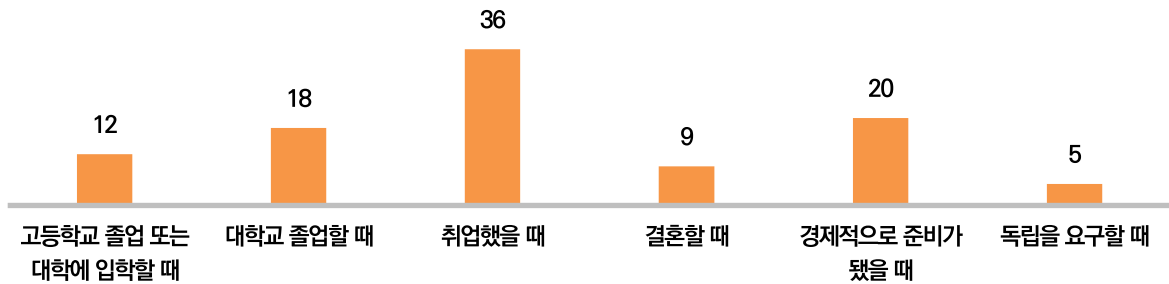
2 성인 자녀의 독립

자녀 독립의 적정 시기는 취업했을 때

자녀가 언제 독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36%는 '취업했을 때'를 든다. '대학교 졸업할 때'(18%), '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에 입학할 때'(12%) 등이 그 뒤를 잇는다. 다만 '경제적으로 준비가 됐을 때'라는 의견도 20%를 보여, 특정 시기보다는 본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독립 여부를 결정하는 인식도 일부 엿볼 수 있다.

(단위: %)

자녀 독립의 적정 시기는 '취업했을 때'(36%) > '경제적으로 준비가 됐을 때'(20%) 순



질문: 자녀의 독립이 가능한 적정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7. 25. ~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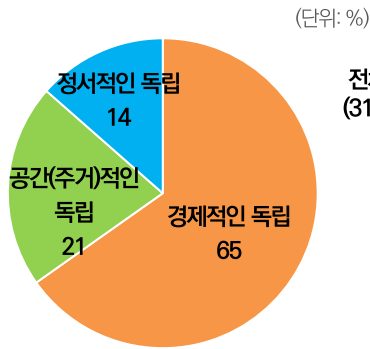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구분 짓는 기준은 경제적 독립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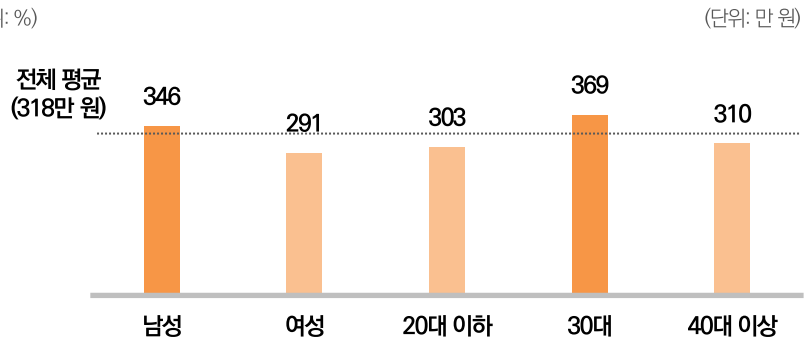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의 65%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구분 짓는 가장 큰 기준으로 '경제적인 독립'을 꼽는다. 주거지 독립 여부는 21%, 부모가 자녀의 개인 생활에 개입하고 결정하는 정서적 독립 여부는 14%이다. 응답자들은 월 소득이 318만 원 이상이어야 완전한 경제적 독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독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월평균 경제적 수입을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3,800만 원이다.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제적 수준에 대해 남성은 346만 원, 여성은 291만 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55만 원 가량 높게 답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369만 원), 40대 이상(310만 원), 20대 이하(303만 원) 순으로, 세대 간 경제적 자립 기준에 대한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구분 짓는 기준, '경제적 독립' 여부(65%)
독립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월평균 소득은 318만 원 이상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구분 짓는 기준



독립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월평균 소득



질문: (독립 기준) 다음 중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구분 짓는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소 소득)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완전히 경제적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최소 얼마의 경제적 수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7. 25. ~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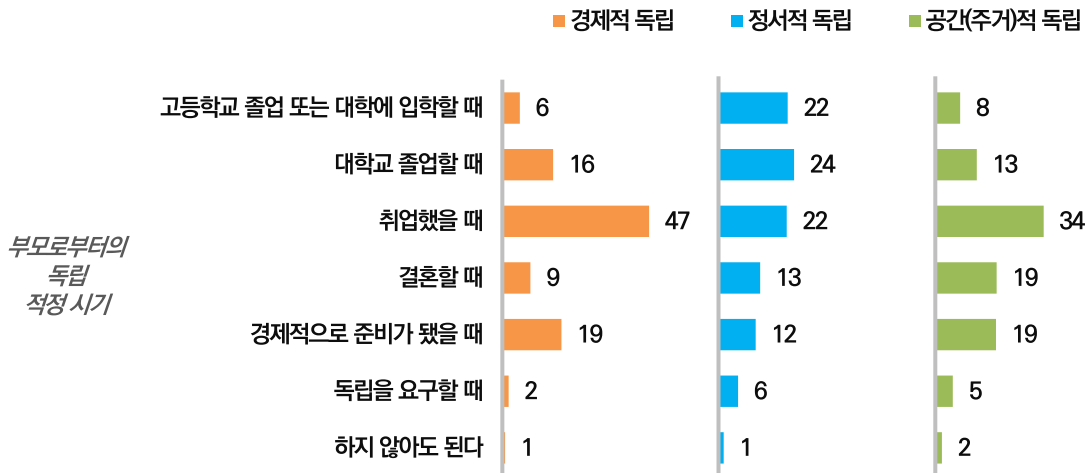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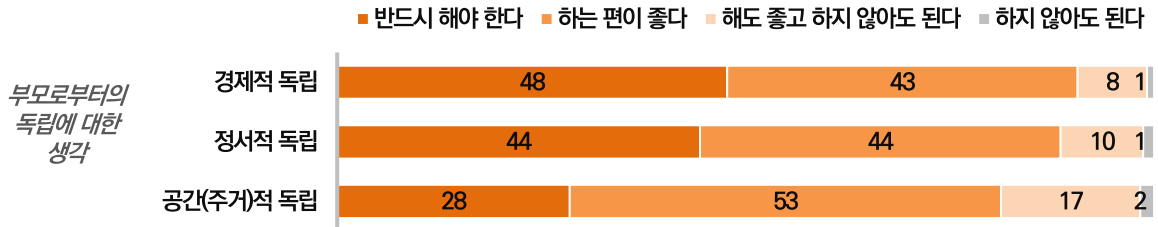
독립을 규정짓는 요건으로 크게 경제, 주거, 정서적 차원을 말한다. 경제적 자립을 '반드시 해야 하거나 하는 편이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91%, 정서 독립은 88%, 주거 독립은 81%이다. 학력이 낮을수록, 주관적 계층 인식이 낮을수록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을 덜 느낀다. 세 가지 차원별 독립 적정 시기를 살펴보면 경제적 독립은 '취업했을 때'(47%), 주거 독립도 '취업했을 때'(34%), 정서적 독립은 '대학교 졸업할 때'(24%) 독립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

(단위: %)

독립을 '반드시 해야 하거나 하는 편이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

경제적 독립(91%) > 정서적 독립(89%) > 주거적 독립(81%)

경제 및 주거 독립의 적정 시기는 '취업했을 때', 정서적 독립은 '대학교 졸업했을 때'



질문: (독립에 대한 생각) 귀하는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공간적, 정서적 독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립 적정 시기) 독립을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7. 25. ~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캥거루족 현상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 44%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 받아

전체 응답자 중 26%는 현재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와 함께 거주한다. 15%는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전체의 11%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용돈 등 경제적 지원도 받고 있다. 경제적 지원의 용도(복수응답)는 '용돈'이 60%이다. 이어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등의 생활비'(58%), '월세, 전세 대출 이자, 관리비 등의 주거비'(30%), '학자금, 어학연수, 학원비 등 교육비'(29%) 등의 순이다. 이들이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월평균 90만 원이다.

부모와 동거 중인 자녀로 한정하면 44%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월평균 지원 금액은 85만 원이다. 비동거하는 자녀(월 110만 원)보다 월평균 25만 원 가량 적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에게는 상대적으로 소액 지원이 빈번하고, 독립한 자녀에게는 학비, 주거비 등 고액이 지원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도 받는 사람은 성인남녀의 11%

(단위: %)

구분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동거 여부		전체
		그렇다	아니다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로부터 받는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 여부	그렇다	11%	3%	15%
	아니다	15%	70%	85%
전체		26%	74%	100%

질문: (부모와 거주) 귀하는 현재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 하는 현재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으로부터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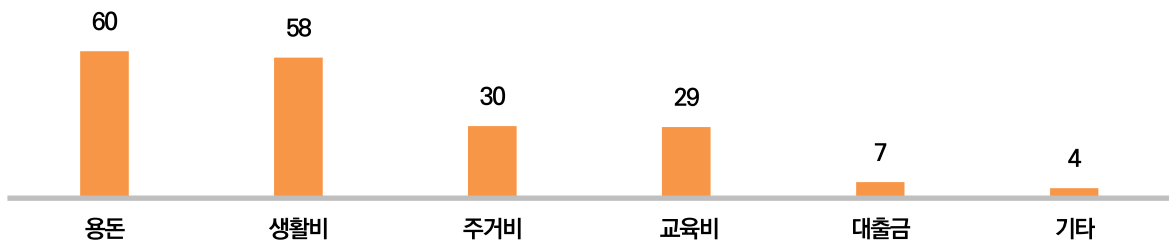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7. 25. ~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경제적 지원, 용돈(60%) > 생활비(58%) 순

(단위: %)



질문: 귀하가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경제적 지원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응답자 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성인 자녀 148명

조사기간: 2025. 7. 25. ~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캥거루족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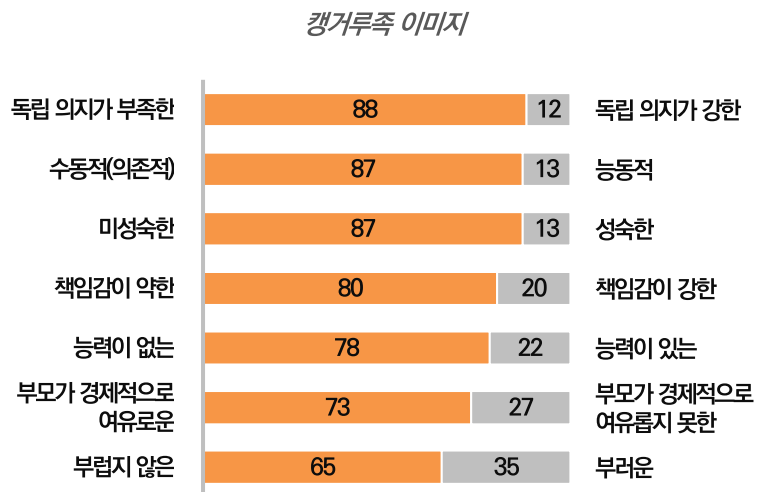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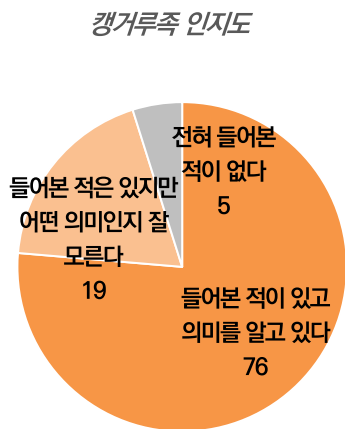
요즘은 '캥거루족'을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부모에게 의존하는 성인 자녀를 일컫는 말로 흔히 사용한다. 이러한 캥거루족에 대한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10명 중 8명(76%)은 들어본 적이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5%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캥거루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 캥거루족을 잘 표현하는 단어를 물어본 결과 '독립 의지가 부족한'(88%), '수동적(의존적)'이고 '미성숙한'(각각 87%), '책임감이 약한'(80%), '능력이 없는'(78%),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73%) 등의 의견이 있다. 캥거루족에 대한 대상과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80%에 달한다.

'캥거루족', 10명 중 8명은 '들어본 적이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

(단위: %)

캥거루족을 잘 표현하는 단어, '독립 의지가 부족한', '수동적(의존적)', '미성숙한'



질문: (용어 인지) 귀하는 '캥거루족'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용어 표현) 다음 중 캥거루족을 잘 표현하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7. 25. ~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당신은 켁거루족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자녀는?

부모와 동거 중이거나(단, 본인/배우자 가구주 제외) 경제적 지원을 받는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귀하는 스스로를 켁거루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고, 48%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이 스스로 켁거루족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부모님 집에 살아서'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다. 이어 '독립할 능력이 없어서'이거나 '부모님께 용돈, 생활비를 받아서'라는 응답도 각각 22%이다. 다만 객관적으로는 켁거루족이 맞지만, 2명 중 1명(52%)은 자신을 켁거루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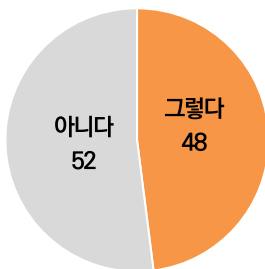
한편 성인 자녀와 동거 중이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부모에게 본인의 자녀가 켁거루족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거나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질문하였다. 이들 중 17%만이 본인의 자녀를 켁거루족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 이유로는 '자녀가 독립할 능력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4%로 가장 많다. 반면 83%는 본인의 자녀가 켁거루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비록 부모 집에서 거주하거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지라도, 켁거루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하여 자녀가 켁거루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향이 있어 보인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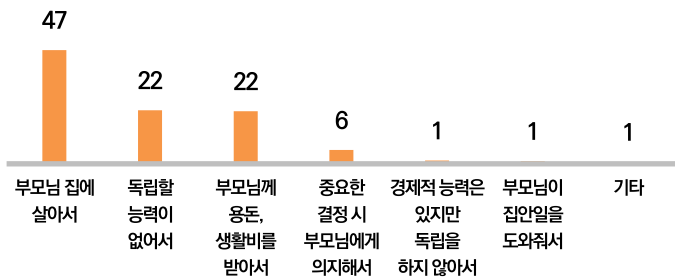
성인 자녀 48%, 나는 켁거루족 성인 자녀를 둔 부모 17%, 나의 자녀는 켁거루족

당신은 켁거루족인가?

본인에 대한
켁거루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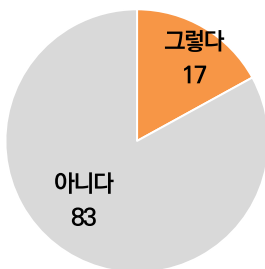


본인을 켁거루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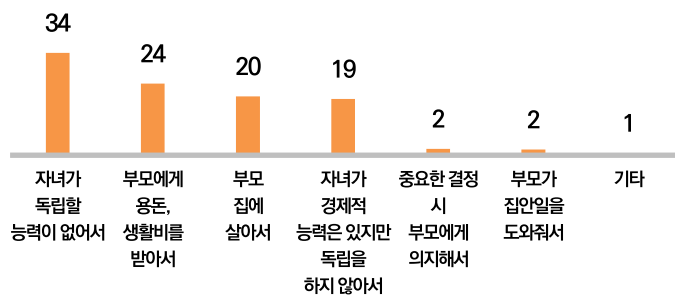


당신의 자녀는 켁거루족인가?

자녀에 대한
켁거루족 인식



자녀를 켁거루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질문: (켁거루족 자기평가) 귀하는 스스로를/귀하의 자녀가 켁거루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 스스로를/귀하의 자녀를 켁거루족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응답자 수: (켁거루족 자기평가) 부모와 동거 중(단, 본인/배우자 가구주 제외)이거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 165명
(이유) 본인을 켁거루족이라고 답한 79명
(켁거루족 자녀평가) 성인 자녀와 동거 중이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부모 277명
(이유) 본인의 자녀를 켁거루족이라고 답한 46명

조사기간: 2025. 7. 25. ~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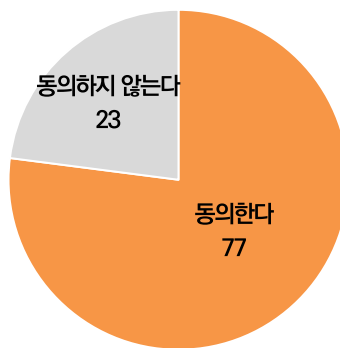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거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과연 사회적 문제일까? 사람들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당연하다(77%)고 본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1+2순위 합산)는 ‘독립에 필요한 목돈(전세금, 보증금 등)이 부족해서’이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서’가 각각 35%이다. 이 외에도 ‘취업이 어렵거나 고용이 불안정해서’(32%), ‘독립 후 생활비가 부담되어서’(27%) 등의 의견도 있다. 독립을 위해서는 경제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단위: %)

자녀는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당연하다(77%)



질문: 귀하는 다음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비고: 동의한다(매우+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전혀+동의하지 않는다) 응답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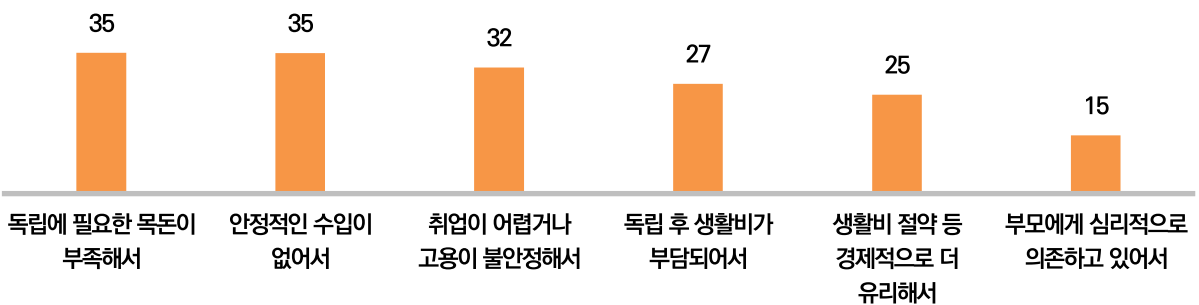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7. 25. ~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단위: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력’



질문: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비고: 복수응답, 1+2순위 응답 제시, 상위 응답 6가지 항목만 제시함.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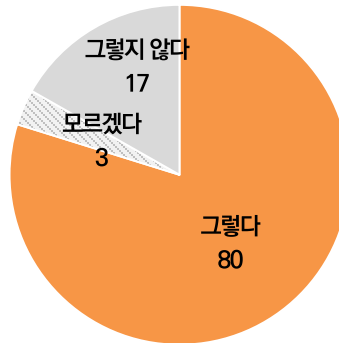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5. 7. 25. ~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80%)은 한국 사회에서의 썩거루족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취업난, 주거난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썩거루족이라는 용어가 개인의 역량 부족을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단순히 이 현상을 개인의 책임이나 의존 문제로 환원하여 평가해서는 안된다. 그 이면에는 고학력, 만혼·비혼 증가에 더해 고용불안, 주거비 부담 등이 겹치면서 점점 경제적 독립을 어렵게 하는 사회구조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얹혀 있음을 보여준다.

(단위: %)

한국 사회에서의 썩거루족 현상은 사회적 문제(80%)



질문: 우리 사회에서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와 동거하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썩거루족' 현상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응답 제시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7. 25. ~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5년 6월 기준 전국 97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59,338명, 조사참여 1,640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7%, 참여대비 61.0%)
조사일시	• 2025년 7월 25일 ~ 7월 28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